

*Viburnum carlesii*

# 분꽃나무

- ▶ 과명 : 인동과
- ▶ 학명 : *Viburnum carlesii*
- ▶ 영명 : Fragrant Viburnum
- ▶ 한명 : 紛花木
- ▶ 일명 : おおじょうじがまずみ

최명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연구과)



2009년 5월 경북 영주 풍기에서 지인을 만나 하룻밤을 보내고 소백산을 오르기 위해 희방폭포를 지나 희방사에 잠시 숨을 고르고 소백산을 향해 가쁜 숨을 내쉬며 오르는데 마침 연분홍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 가까이 가보니 분꽃나무였습니다. 꽃 발침과 꽃잎의 끝에 연한 핑크빛이 감돌아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분꽃나무가 좀 전에 본 희방폭포는 높았지만, 봄철이어서 물량이 적어 실망 하던 차 예쁜 꽃을 봄으로 그 실망감을 감출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반도를 비롯한 일본 중국에도 분포하며 산기슭의 양지에서 자생하는 낙엽활엽 작은키나무로 높이가 2~3m 정도 자라고 밑에서 많은 줄기와 뿌리에서 올라오는 새순이 큰 포기 만드나. 햇빛을 좋아해 양지 바른 곳에서 다른 관목들과 같이 잘 자라나 햇빛이 적은 나무 그늘에서도 자라기는 하나 그늘 속에서는 꽃의 색깔이 흰빛이 많아 관상적 가치는 떨어진다. 내한성이 강하고 바닷가에서도 잘 생육한다.

가지는 마주나고 어린 가지에는 성상모가 밀생한다. 잎도 마주나며 계란형이고 길이 3~10cm로서 잎 양면에 털이 많고 잎의 가장자리에는 불규칙한 톱니가 있다. 꽃은 4~5월에 잎과 함께 피고 지름 1.0~1.4cm로서 복숭아 꽃색 또는 흰색으로 작은 꽃이 나팔모양이며 여러 개가 모여 취산화서(聚散花序)로 피며 꽃향기가 짙다. 열매는 계란 모양이며 9월에 분홍색에서 검게 변하며 익는다.

바닷가 모래사장에 나며 잎이 약간 좁고 길며 꽃이 소형인 것을 섬분꽃나무(var. *bitchuense*), 심산에



자라고 화관(花冠)이 길고 가늘며 가을에 열리는 열매가 유난히 광택이 많은 것을 산분꽃나무(*V. burejaeticum*)라 한다.

따뜻한 봄벌에 지난해 자란 가지 끝에 가졌던 꽃눈이 연분홍색 꽃봉오리로 진하게 맺혀서 새하얀 속 꽃을 드러내면 달콤한 향기가 주위를 물씬 적셔 준다. 양수이기 때문에 공원이나 가정 정원에 햇빛이 잘 비추는 곳에 식재하여 분홍색 꽃과 향기를 만끽할 수도 있어 군식으로 식재하여도 무방하다.

번식은 가을에 익은 종자를 채취하여 2년간 노천매장하였다가 파종해야 발아하며 좋은 품종을 증식하기 위하여는 십목을 하여야 한다. 🌿